

# 조선후기 黃嶽山 畫僧의 활동과 碧巖門中의 助力

이용윤\*

- I. 머리말
- II. 황악산 직지사의 碧巖門中 世居
- III. 벽암문중의 佛事와 황악산 화승의 조형 활동
- IV. 염화불 도상과 벽암문중의 佛書 간행
-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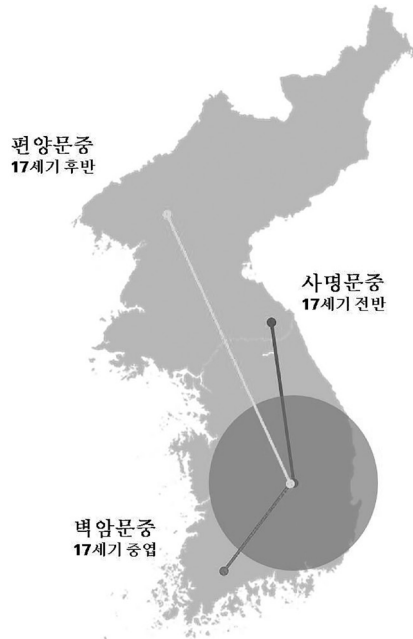
## I. 머리말

사찰에서 불화를 전각에 모셔지기 전까지 불화를 그리는 화승을 비롯해 제작 경비를 마련하는 化主, 불사의 적법함을 증명하는 證師, 행정을 전담하는 住持와 別坐 등 다양한 所任을 맡은 여러 승려들이 佛事に 참여한다. 기록에는 자세히 전하지 않지만 원활한 불화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사를 추진하는 사찰 구성원의 동의가 우선시되며, 이러한 동의는 사찰의 고위층 승려인 중사, 화주, 주지 등의 운영주체를 통해 구체화되어 화승의 활동을 조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sup>1</sup>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sup>1</sup> 불화 조성에 참여한 구성원의 소임에 관한 연구로는 이종수·허상호, 「17-18세기 불화의 『畫記』 분석과 용어 考察」, 『佛敎美術』 21(2010), pp. 145-181; 정명희, 「조선시대 불교 의식과 승려의 소임 분화: 감로도 와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에 사찰의 구성원은 대부분 동일한 법맥으로 연결된 승려문중으로 이루어지며 불사의 주축인 화주, 증명을 비롯한 화승은 사찰을 운영하는 문중 구성원으로 조직된다.<sup>2</sup>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사승관계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西山休靜과 浮休善修가 배출한 四溟惟政, 逍遙太能, 靜觀一禪, 鞭羊彦機, 碧巖覺性에게서 많은 제자들이 길러지면서 조선후기에는 법맥을 중시한 승려문중이 발전하였다. 이들 문중은 임진왜란 전후 묘향산 보현사, 금강산 유점사, 조계산 송광사와 지리산 화엄사 등지에 세거하였으며, 전란 후 피해를 입은 사찰을 복원하고 교화하기 위해 門徒를 파견하면서 지역마다 군소 승려문중이 형성되고 확산되었다. 17세기 전반 경상도에 가장 먼저 정착한 승려문중은 금강산을 근거지로 하는 사명문중이다. 이어 17세기 중엽에 전라도와



도 1 17세기 승려문중의 경상도 이동 양상

충청도의 벽암문중이 유입되었고 17세기 후반에는 북방의 편양문중이 남하하였다(도 1). 사찰에 정착한 승려들은 중창이 끝난 후에도 전각 중수와 불상, 불화 조성을 주도하며 문중의 영향력을 높여 갔으며 문중과 관련 있는 僧匠이 불사에 참여할 경우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승려문중이 화승의 조형 활동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黃巖山直指寺에서 일어난 불사를 대상으로 당시 불사를 주도했던 벽암문중과 직지사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수화승 卓輝, 性澄, 世冠 등이 관계를 조명하고, 탁휘와 성징이 조성한 과불도에 표현된 拈花佛을 통해 승려문중이 공유했던 사상과 도상이 불화로 조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로, 『미술사연구』 31(2016), pp. 252-281.

<sup>2</sup> 조선후기 승려문중과 화승과의 조력 관계를 고찰한 연구로는 강영철, 「19세기 초 경기지역 華巖·華潭 門中の 畫僧」, 『동양미술사학』 5 (2004), pp. 55-162; 이용윤, 「退雲堂 信謙 佛畫와 僧侶門中の 後援」, 『미술사학연구』 269 (2011), pp. 71-101; 「조선후기 통도사의 僧侶門中과 畫僧 任閑」, 『불교미술사학』 26 (2017), pp. 127-158; 「조선후기 鞭羊문중의 佛事와 僧侶匠人의 활동」, 『미술사연구』 32 (2017), pp. 137-165.

## II. 황악산 직지사의 碧巖門中 世居

임진왜란 이후 전국 대부분의 사찰과 마찬가지로 직지사 또한 전란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직지사는 전란 후인 1602년에 仁守, 明禮 등의 발원으로 중창 불사가 시작되었고 그 후 70여 년간 妙衍, 尙元, 信洽, 寶鑑, 道慧, 覺淳 등의 노력으로 가람이 복원되었다.<sup>3</sup> 이때 불사를 주도한 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직지사가 사명유정의 출가 사찰이고 사명유정의 제자와 3세손인 虎丘戒珠와 松坡覺敏, 醉白崇憲 등의 승탑과 진영이 직지사에 모셔진 점, 그리고 1676년 용연사에 건립되는 송파각민의 비에 직지사 주지 呂祥이 동참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직지사의 복원 불사는 사명문중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17세기 후반 碧巖門中과 鞭羊門中이 직지사에 유입되면서 사찰의 운영 주체인 승려문중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684년에 편양언기의 제자 幻寂義天(1603-1690)은 해인사에서 직지사 견성암로 옮겨와 주석하였으며, 또 다른 제자 月潭雪霽(1632-1704)는 1686년에 學徒를 이끌고 직지사에서 俗離山 大巖菴로 옮겨 강학을 펼쳤다.<sup>5</sup> 이후 월담설제의 학도였던 喚醒志安(1664-1729)은 暮雲震言(1622-1703)이 1690년에 직지사에서 개최한 화엄법회에서 수승함을 인정받아 법석을 물려받기도 하였다. 모운진언은 벽암각성의 제자이며 환성지안은 편양언기의 3세손이다. 직지사에서 활동했던 월담설제, 모운진언, 환성지안의 행적에서 알 수 있듯이 17세기 후반 직지사에 서는 문중간의 공존과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직지사에 세거했던 승려문중의 변화는 『金山直指寺重記』(1776)와 『金山直指寺事蹟』(조선후기)에 수록된 『影子大師堂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표 1). 두 사적기에 기록된 승려들의 진영과 승탑을 살펴보면, 사명문중은 사명유정부터 3세손까지 진영과 승탑이 제작되었다. 사명문중은 17세기 후반까지 직지사에서 그 세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편양문중 출신으로 월담설제

3 <直指寺事蹟碑>(1681 작성, 1741 건립) “…壬辰之亂寺蕩爲灰燼山人仁守明禮等發願重脩繼而有妙衍尙元信洽寶鑑道慧覺淳等幹其役七十年間首尾用力殿閣之數供佛之具實復舊貫其榜曰殿者八日閣者三日寮者十二日寮者四日莊者三日門者四其正室三百五十三楹廚廊倍之山內二十餘菴皆屬焉諸比丘之營葺可謂勤矣寺僧嘉善階呂詳欲記本寺顛末鳩財伐石謁余而請文…”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Ⅱ-자료집』(2007), pp. 132-133(이하 『경상북도Ⅱ-자료집』).

4 <直指寺觀音殿上樑文>(1693)에 따르면 1656년 관음전 건립에는 송파각민을 비롯해 손상좌인 思一, 信灑, 사명유정의 법맥을 계승한 性天 등이 前任持로 기록되어 있다.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直指寺誌』(아세아문화사, 1980), p.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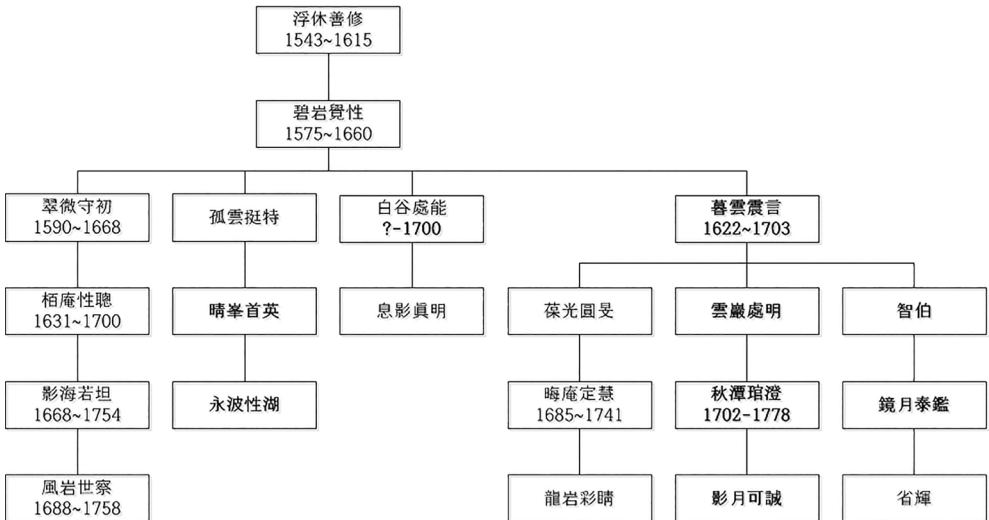
5 월담설제의 일화는 丁詩翰 著·金成讚 譯, 『山中日記』(國學資料院, 1999), pp. 149-115 참고. 모운진언과 환성지안의 일화는 智冠 編, 『韓國高僧碑文總集-朝鮮朝·近現代』(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 pp. 313-315 참고.

를 제외하고 다른 승려의 진영이 제작되지 않다가 影坡聖奎(1728~1812)의 진영이 모셔졌다. 이로보아 편양문중이 직지사예 본격적으로 세거한 시기는 18세기 후반으로 파악된다. 벽암문중은 모운진언을 시작으로 秋潭瑄澄, 影月可誠, 虎峰雪鴻 등 19세기 초까지 여러 세대의 승탑과 진영이 조성되었다. 승탑과 진영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 벽암문중은 17세기 후반에 부상하여 18세기에 직지사예 가장 영향력 있는 문중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직지사 사적기에 기록된 승탑·진영과 문중의 관계

사명문중		벽암문중		편양문중	
金山直指寺重記	金山直指寺事蹟	金山直指寺重記	金山直指寺事蹟	金山直指寺重記	金山直指寺事蹟
四溟和尚影子浮屠	四溟堂弘濟尊者惟政		暮雲堂眞言大師浮屠	月潭和尚影子	
	虎丘堂戒珠師浮屠	秋潭和尚影子浮屠碑石			
	松坡堂覺敏大師影子	退隱和尚影子			
	醉白堂崇憲大師浮屠	影月和尙影子			
		虎峰和尚影子		影波和尚影子	

〈표 2〉 17세기~18세기 벽암문중의 법맥도



직지사예 모운진언이 화엄법회를 개최하고 입적 후 그의 승탑과 진영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직지사예 정착한 碧巖門徒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인물이 바

로 孤雲挺特의 제자 晴峯首英이다. 벽암각성의 제자인 고운정특은 사형사제인 翠微守初(1590-1666), 白谷處能, 모운진언에 비해 후손이 번성하지 못했으나 당시 선지식으로 이름이 높았던 청봉수영을 제자로 배출하였다(표 2).

청봉수영은 모운진언의 행장을 지었을 정도로 벽암문중에서 존경을 받았으며 <석가여래영골사리부도비>(1706)에 월지도안, 상봉정원, 석실명안, 풍계명찰 등과 나란히 대선사로 기록될 정도로 불교계의 신망도 높았다.<sup>6</sup> 직지사에서 1686년에 山內庵子인 운수암에 주석하였고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1721, 중흥사판)에 “黃岳山講主”라 기록될 정도로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황악산 직지사를 대표하는 인사였다.<sup>7</sup>

청봉수영이 1689년에 지은 <高方寺創建兼重葺 현판>에는 경상도 서북부에 분포한 벽암문중의 지역적 기반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임진왜란에 소실된 고방사를 중창하기 위해 벽암각성의 후손인 熙俊장로가 湖西, 즉 충청도에서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sup>8</sup> 이는 직지사, 고방사 등 김천을 비롯한 경상도 서북부 사찰에 정착한 벽암문중이 충청도의 벽암문중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7세기 후반 직지사와 고방사에서 나타나는 승려들의 유입과 이동은 김천이 가진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다. 특히 황악산은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 교통요충지인 추풍령과 인접해 있다. 산세를 따라 동북쪽으로는 확장하면 상주와 연결된 속리산 충북 보은 법주사와도 이어지며 서남쪽으로는 지례와 성주를 따라 쌍계사와 청암사, 수도암을 지나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로 연

6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에 의하면 고운정특의 제자로 청봉수영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봉수영의 제자인 尙能, 道林, 蓮峯, 雙慧 등을 끝으로 더 이상 후손이 실려 있지 않다.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韓國佛教全書』 10 (1988), p. 126(이하 『韓國佛教全書』). 청봉수영은 『募雲大老行蹟』을 지으면서 자신을 “碧巖之後孤雲門人晴峯秀暎”이라 소개하였다. 『韓國佛教全書』 8 (1987), pp. 187-188.

7 <釋迦如來靈骨舍利浮圖碑>(1706), “...今通度寺是也萬曆壬辰兵亂之餘松雲大老誌事焉順治淨仁師重完而康熙乙酉春性能不慧自方丈來百劫難遇之聖骨濫奉瞻禮修寶壇鐫樹碑事已悲感洒淚謹跋...大禪師 北道安 東自澄 西掬秋 南首英 京淨源 湖明眼 叙壽 法眼 印罔 明察 山中大德 性均...”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Ⅱ-자료집』 (2009), pp. 308-309(이하 『경상남도Ⅱ-자료집』); 황악산강주에 관한 기록은 朴世敏,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4 (1993), p. 85 참고; 청봉수영이 운수암에 주석한 사실은 丁詩翰 著·金成讚 譯, 앞의 책, p. 18 참고.

8 <慶尙道開寧縣南有乞水山高方寺創建兼重葺 縣版>(1698), “...萬曆壬辰島夷之變寺皆焚燬而法堂肅然獨存矣迨者壬辰年○○軒熙俊長老迺碧巖門之後裔也自湖西杖屨至此...崇禎後戊寅仲春下浣日晴峯首英謹寫...相佛匠人勝一 畫佛匠人三益...緣化秩別坐思益 供養主...助化性湖...”, 『경상북도Ⅱ-자료집』, pp. 115-116.; 이 현판은 임진왜란 이후 불사 중 1670년에 勝一과 三益이 불상과 불화를 조성한 일과 1668년에 敏圓이 불화를 제작한 일을 비유 있게 기록하였다.

결된다(도 2).<sup>9</sup> 고방사의 현판 기록대로 17세기 후반 충청도의 벽암문중은 복원 불사를 위해 경상도 서북부로 옮겨와 세거사찰을 형성하였다. 인접 지역의 사찰 불사를 위한 인적 이동은 고위층 승려의 이동만이 아니라 불사를 담당하는 장인들의 이동을 촉발하였고 이는 17세기 후반 <신원사 괘불도>(1664)와 <수덕사 괘불도>(1673)를 조성한 충청도 화승 應悅이 1668년에 직지사 천불전 단청 불사에 참여하고, <갑사 삼세불회도>(1650) 조성 때 보조화승이었던 學能이 수화승이 되어 1688년에 상주 북장사에서 영산회괘불도를 제작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sup>10</sup>



도 2 <여지도의 금산군>, 1735년-1767년, 26.5cm×19.1cm

### Ⅲ. 벽암문중의 佛事와 황악산 화승 조형 활동

#### 1. 碧巖系 孤雲門中の 직지사 불사와 화승 卓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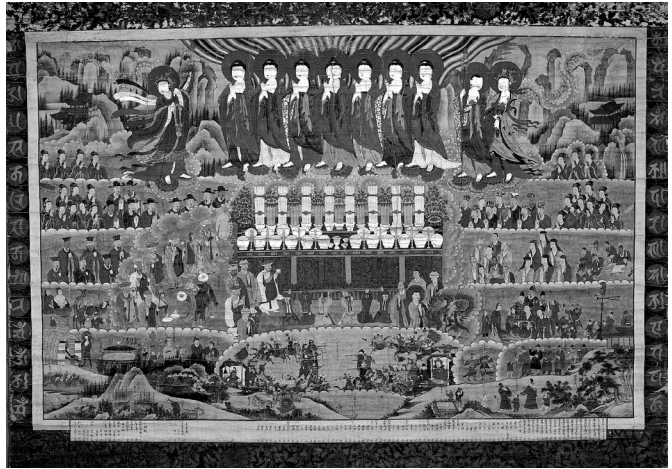
17세기 직지사 가람을 복원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장인들이 직지사에 모여들었다. 특히 대웅전, 천불전, 관음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청 불사는 직지사에 많은 화승들이 집결하는 동력이 되었다. 1649년 대웅전 단청을 주도한 화승은 알 수 없으나 1668년 천불전 단청 불사에는 應悅, 1693년 관음전 단청 불사에는 弘彦 등 당시에 활동한 화승의 기록이 전하며, 이들을 기반으로 17세기 말 卓輝를 시작으로 性澄, 世冠 등 수화승이 배출되면서 황악산 직지사를 거점으로 하는 화승집단이 형성되었다.

<sup>9</sup> 『산중일기』에 의하면 정시한은 원주-충주-괴산-상주를 거쳐 직지사에 왔으며 이어 청암사, 수도사, 쌍계사를 둘러 해인사로 이동하였다. 丁詩翰 著·金成讚 譯, 앞의 책, p. 36.

<sup>10</sup> 응열에 관한 기록은 직지사 천불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원문>(1668) “...丹青畫元 應悅比丘 雙允比丘 學全比丘 先悟比丘...” 『경상북도Ⅱ-자료집』, p. 124 참고; 『山中日記』에는 1686년에 보은 속리산 觀音寺에 상주하는 學能이 기록되어 있다. 관음사 학능과 화승 학능의 관계는 후후 자료가 나오면 명확해질 것이다.



도 3 <북장사 영산회괘불도>, 1688년, 삼베에 채색, 1,237×778cm



도 4 <남장사 감로도>, 1701년, 비단에 채색, 189×298cm

탁휘는 1693년에 흥언이 주관하는 직지사 관음전 단청에 보조화승으로 합류하면서 직지사 불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직지사에 정착하기 전 탁휘는 學能을 모시고 次畫僧으로 <북장사 영산회괘불도>(1688)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수화승의 지위에 올라 <남장사 감로도>(1701), <선석사 영산회괘불도>(1702)를 제작하였다(도 3, 4).<sup>11</sup> 어떤 배경 속에서 탁휘가 직지사에 정착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북장사 영산회괘불도>에 참여했던 화승들의 행적과 당시 직지사 불사를 주도했던 승려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충청도에 기반을 둔 화승과 벽암문중과 관련이 있다.

학능은 활동 초기에 수화승 敬峇이 주관하는 충남 공주 <갑사 삼신괘불도>(1650)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였다. 현전하는 불화만을 보면 탁휘는 경잠과 학능의 화맥을 계승하고 있다.<sup>12</sup> <북장사 영산회괘불도> 조성에서 보조화승으로 활동한 善行은 1659년에 실시된 孝宗殯殿과 寧陵山陵都監 공역에서 法能과 함께 작업을 하였다.<sup>13</sup> 선행과 같이 작업은 법능은 공주 출

<sup>11</sup> <북장사 영산회괘불도>(1688), “...緣化秩 證明比丘德淳 持殿比丘惠贊 畫員比丘學能 次比丘卓輝 比丘惠明 比丘法蘭 比丘雲湜 比丘天律 比丘善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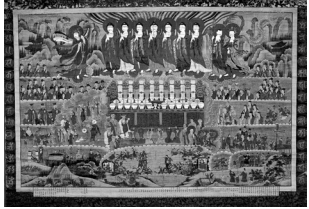

<sup>12</sup> 직지사 천불전은 1656년에 속리산 승려 景峇이 처음 세웠다고 전한다(金陵西嶺直指寺千佛殿重勅記 懸板)(1707), “...順治紀元之丙申歲俗離山人景峇師之所以初成也...”. 활동 시기와 지역 등을 고려하면 직지사 천불전을 창건한 景峇과 <갑사 삼신괘불도>(1650)를 조성한 敬峇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

<sup>13</sup> 박정혜,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 9(1995), p. 224의 孝宗殯殿都監儀軌,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참고.

신으로, 보조화승 시절 明玉이 주관하는 충북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도>(1653)와 경기 안성 <청룡사 영산회괘불도>(1658) 제작에 참여하였고 수화승이 된 후 <청룡사 감로도>(1692)를 제작하였다. 법능은 탁휘와 직접적인 화연관계는 드러나지 않지만 탁휘가 조성한 <남장사 감로도>(1701)가 법능이 제작한 <청룡사 감로도>(1692)와 존상 표현과 설채법, 세부문양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탁휘의 화풍은 17세기 후반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화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14</sup>

탁휘가 직지사에서 활동하는 기간에 불사를 이끈 중심인물은 고운정특의 후손인 청봉수영과 泳波性湖이었다(표 3). 청봉수영은 벽암문중의 고위층 승려로서 <고방사창건중증 현판>을 비롯해 직지사 천불전 중창기 기문(1702), 천불전 불상 개금기(1707)를 지었으며,<sup>15</sup> 탁휘가 <남장사 감로도>(1701)를 제작할 때 증명을 맡기도 하였다.<sup>16</sup> 탁휘가 어느 문중 출신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청봉수영을 증사로 모셨다는 것은 벽암문중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직지사 벽암문중과 화승의 활동

	불사의 주요승려와 화승의 역할	도
남장사 감로도(1701)	證參 秀暎 持殿 三應 大畫士 卓輝 畫負 性澄 雪岑 處賢	
직지사 천불전 단청(1702)	成造化主 性湖 靑丹化主 印輝 上片手 三益 上片手 卓輝 禪覺 法海 將遠 性〇 〇〇 性澄 效安 采輝…	

<sup>14</sup> 탁휘만이 아니라 학능의 화풍은 명옥의 화풍과 유사하다. 17세기 후반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활동한 명옥, 법능과 경상북도에서 활동한 학능과 탁휘의 화풍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는 이용윤, 『조선 후기 嶺南의 佛畫와 僧侶門中 연구』(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p. 66-71 참고.

<sup>15</sup> <直指寺千佛殿藥師佛改金腹藏文>(1707), “…康熙四十六年春三月中泮有一日年歲九十老晴峯強起抽毫記成事…康熙四十六年丁亥三月日化主山人性湖” 천불전 불상 개금기는 청봉수영이 90세의 나이에 작성한 글이다. 『경상북도 II-자료집』, p. 125.

<sup>16</sup> <남장사 감로도>(1701), “…證參 秀暎比丘 持殿三應比丘 大畫士卓輝比丘 畫負性澄比丘 雪岑比丘 處賢比丘 供給 覺獮比丘 能捧比丘 克林比丘 別座弘衍比丘 大”化主慧心比丘”

<p>직지사 천불전 불상개금(1707)</p>	<p>成造兼改金大化土 性湖 化主 印輝 改金畫員 性澄 曉安 致淳 心俊 道益</p>	
<p>직지사 대웅전 단청(1714)</p>	<p>山中名現大德秩 比丘卓輝 證明 大德永波堂性湖比丘 法殿丹青畫工秩 比丘雪岑 比丘性澄 比丘道益…</p>	

청봉수영에 이어 직지사의 불사는 청봉수영의 제자 영파성호에 의해 주도되었다.<sup>17</sup> 영파성호는 직지사 천불전 중창(1702)과 대웅전 개금 및 단청(1714) 같이 중요 불사가 있을 때마다 직지사로부터 化主와 證明로 초청받았으며, 불사를 진행하며 장인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표 3).<sup>18</sup> 외부에서 장인을 초청하는 방식은 18세기 초 천불전 중창 때에도 계속되었지만 그 대상은 건물 대목인 惠菴일 뿐 단청은 탁휘를 비롯한 직지사에서 활동하던 화승들에게 맡겨졌다. 17세기 단청 불사와 다르게 외부의 초청 화승이 아닌 직지사 화승들이 담당했다는 것은 18세기 초 직지사에는 이를 수행할 실력과 조직을 갖춘 화승집단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탁휘는 <남장사 감로도>(1701), <선석사 영산회괘불도>(1702)를 조성하였으며 이전부터 같이 작업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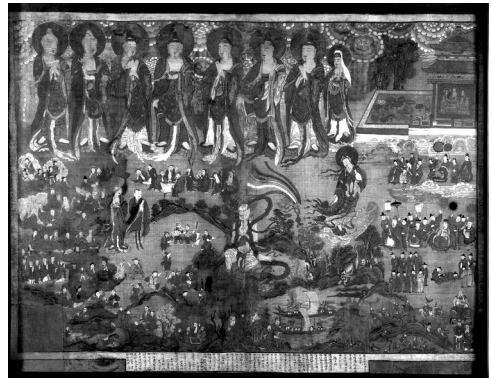
<sup>17</sup> 영파성호는 영남 영양인으로 청봉수영의 법을 이어받았다. <慶尙道金山郡地西顏黃嶽山直指寺佛像三尊改金腹藏重修記>(1714), “…佛像三尊蒙世遠而脫金法殿丹腹曆春秋而無光爲人所憂者百有餘載而○人修補崇禎後七十一年卽康熙五十三年甲午也 粵有性湖道人嶺南永陽之人也…受法於晴峰之門而搜得宗旨處處入室大開法場是禪門之大德乃佛法之指南也大發誓願切勸同志之士受法弟子成○也…” 『경상북도 Ⅱ-자료집』, p. 123.

<sup>18</sup> <直指寺千佛殿重砌上樑文>(1702), “…茲我有道比丘遂謀普界檀越撮合主會新辦七聖之財工舉匠趁更砌三座之縛月支迦葉傳億代而長存…緣化秩上片手通政惠岩比丘副片手自行…成造化主道人性湖比丘 座前刊事供養○○大功德義天比丘 青丹化主○○兼人輝…丹青緣化 上片手三益 上片手 卓輝 禪覺 法海 將遠 性○○ 性澄 效安 采輝…” <金陵西嶺直指寺千佛殿重砌記 懸板>(1707), “…太清康熙之四十一年也本社僧正幸寬及諸緇等特就性湖大德請勸重新之大舉也湖亦樂善人也卽應日諾也…同年二月之望請都料匠則俗離之通政惠菴也…時太清康熙四十一年壬午四月日臺山晴峯記之殿內五聖相歲歷久遠未免無常衣金剝落漫漶不鮮者年深矣昨於壬午歲千佛殿重葺首倡大化性湖大德歲歷六周迄茲丁亥春改金五佛相焉…緣化秩 大木通政惠菴 通政尙行 通政印○ 畫員 三益 卓輝 法海 雪岑 丹青別座 哲峯 水陸別座學眞 改金畫員性澄 曉安 致淳 心俊 道益 …成造兼改金大化土性湖 化主 印輝 別座通政義天”. 『경상북도 Ⅱ-자료집』, p. 154, p. 156.

던 法海, 雪峯을 포함해 후배화승 性澄 등을 자신이 이끄는 화승집단에 흡수해 황악산 화승집단의 근간을 이루었다.

## 2. 碧巖系 暮雲門中 출신 화승, 龍眠 性澄

18세기 초 천불전 불사를 마무리한 직지사는 새로운 불사의 대상으로 주불전인 대웅전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1714년에 직지사는 대웅전을 중수하면서 삼존불상의 개금, 사천왕상 중수와 대종 중수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1714년 직지사 불사를 주도한 핵심 인물 역시 영파성호였다(표 3). 대웅전 단청과 개금이 진행될 당시 탁휘는 화승에서 물러나 山中名現大德으로 직지사의 주요 승려인 운암처명, 凌虛義天, 法蘭 등과 함께 후배화승인 설잠, 성징, 道益 등의 조형 활동을 도왔다.<sup>19</sup>



도 5 <성주사 감로도>, 1729년, 비단에 채색, 190×267cm

탁휘에 이어 직지사 수화승으로 성장한 이는 性澄이다.<sup>20</sup> 성징의 불화로는 <용문사 영산회괘불도>(1705), <직지사 감로도>(1724), <성주사 감로도>(1729, 도 5) 등이 전한다. 탁휘가 이끄는 화승 집단에서 설잠과 경쟁을 하던 성징은 <남장사 감로도>(1701) 조성에서 차화승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1705년에는 수화승으로 독립하여 <용문사 영산회괘불도>를 제작하였다. 또한 1707년에는 천불전 불상 개금을 진행하면서 직지사 화승으로서 위상을 높여갔다.

<sup>19</sup> <慶尙道金山郡西嶺黃巖山直指寺佛像三尊改金腹藏重修記>(1714), “...癸巳甲午二年之間法堂丹腹佛像改金天王重修大鐘重修一時成...山中名現大德秩比丘固照處明比丘義天比丘解贊比丘法蘭文○比丘慧秀比丘卓輝比丘弘提密玄比丘比丘學教...緣化秩證明大德永波堂性湖比丘知殿山人玄覺比丘...佛像改金畫工秩嘉善比丘清允比丘靈旋比丘灑日比丘太暹武善單身法殿丹青畫工秩比丘雪峯比丘性澄比丘道益比丘雪○比丘性眼比丘順安比丘雪○比丘呂清比丘取灑比丘心俊比丘心○比丘六清比丘致學比丘碩宗比丘惠察比丘印贊比丘贊信比丘一玄比丘戒摠比丘名峯比丘智明如○時萬都監比丘清眼...”, 『경상북도 II-자료집』, p. 123.

<sup>20</sup> 김미경, 『龍門寺 靈山會掛佛幀』,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7 (통도사성보박물관, 2002);李宗洙, 『靑銅腹藏囊의 新例-腹藏文 내용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69 (2003), pp. 133-142; 최연, 『聖住寺 甘露幀』, 『朝鮮時代甘露幀 특별전 甘露(上)』 (통도사성보박물관, 2005), pp. 100-109; 尹銀熙, 『화승 性澄의 불화 연구』, 『강좌미술사』 26-2 (2008), pp. 609-636.



도 6 <쌍계사 정혜대사비>, 1744년,  
전체높이 326cm



도 7 <지장사 괘불도 복장원문>, 1722년, 52.4×58.5cm

성징은 화승이 되기 전인 1670년에 김천 봉곡사에서 별좌로 활동하였다.<sup>21</sup> 봉곡사는 부휴선수, 벽암각성, 모운진언, 葆光圓旻 등의 祭祀를 지내는 부휴계 모운문중의 세거사찰이다.<sup>22</sup> 따라서 봉곡사에 주석했던 성징은 모운문중 출신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모운진언-보광원민-晦庵定慧(1685-1741) 등으로 이어지는 승려문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3</sup> 실제로 김천 청암사 <회암정혜대사비>(1741)의 뒷면에는 수십 명의 門人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 性澄이 포함되어 있다(도 6).<sup>24</sup> <회암정혜대사비>에서 성징 외에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인물은 회암정혜의 문인으로 기록된 秋潭貫澄이다. 추담관징은 스승인 운암처명에 이어 18세기 후반에 직지

21 <祝願榜>(1670), “...緣化比丘證明智源比丘 持殿弘律比丘 上畫負三應比丘 學宗比丘 …別座性澄比丘 大”化主比丘戒日 康熙十年庚戌三月十八日.” 『경상북도 II-자료집』, p. 121.

22 『先師追薦錄』에는 “...先師虛靜堂慧遠大禪師覺靈 先師碧巖堂覺性大禪師覺靈 先師浮休堂善修大禪師覺靈 先師清虛堂休靜大禪師覺靈 芙蓉堂靈觀大禪師覺靈 慕雲堂震言大禪師覺靈…葆光堂圓旻大禪師覺靈…”이라 적혀 있다. 부용영관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청허휴정은 부휴선수의 동문으로서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靈魂軸』(1810) 첫 장에는 “先師慕雲堂大禪師震言覺靈 先師葆光堂大禪師圓旻覺靈 先師晦庵堂大禪師定慧覺靈…”이 적혀 있다.

23 조선 후기 김천에는 직지사, 봉곡사만이 아니라 쌍계사, 청암사에도 보광원민의 문도가 분포해 있었다. 대표적으로 청암사에는 보광원민의 제자인 회암정혜의 <禪教兩宗晦庵堂大禪師定慧真影>(과 <晦巖禪師塔> 및 <有明朝鮮國佛靈山雙溪寺定慧大師碑>(1741), 그리고 손상좌인 용암재정의 <龍巖堂大禪師須晴真影>과 <龍巖禪師塔>, <龍巖大師像塔>(1767)가 세워져 있으며 진영도 함께 전한다.

24 <有明朝鮮國佛靈山雙溪寺定慧大師碑>(1741), “...門人 玉峯 喜悅 守悟 能道 志一 弘敏 惺岸 脫遠 彩晴 慈敏 …貫澄 祖愿 道泰 冠冠 再熟 覺演…覺聰 鵬演 任行 鳳羽 性納 有伯 性澄 覺元…” 『경상북도 II-자료집』, p. 168. 회암정혜의 비에는 직전인 용암재정부터 추담관징, 서악도태 등 벽암각성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다.

사를 이끈 대표적 인사이다. 회암정혜의 비에서 드러난 추담관징과 성징의 관계는 직지사에서 성징이 수화승이 되고 그가 이끄는 화승집단이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표 4).<sup>25</sup> 벽암문중을 기반으로 한 성징의 활동은 1729년 성주사 불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리적으로 김천 직지사와 창원 성주사가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성징이 성주사에 초청된 배경은 불사를 주관한 승려 眞淨이 벽암의 후손이란 사실이 작용하였을 것이다.<sup>26</sup>

성징은 탁회에 이어 직지사의 수화승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속한 화승집단의 위상과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성징은 화기나 원문에 자신이 직지사 화승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불화를 그리는 장인을 뜻하는 畫員, 片手란 용어 대신 龍眠이란 새로운 칭호를 사용하였다.<sup>27</sup> 용면은 화승들 가운데 필력이 뛰어난 우두머리 화승, 수화승을 지칭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sup>28</sup> 이 용어는 성징이 1722년에 지장사 괘불도를 제작하면서 작성한 〈腹藏文〉에 등장한다. 복장문에서 성징은 “余者龍眠也居在金陵之直指寺”이라며 자신을 직지사의 거주하는 용면, 즉 직지사 수화승이라 소개하였다(도 7).<sup>29</sup> 〈성주사 감로도〉(1729) 조성 때에서도 성징의 법호 앞에 용면이라 기록하여 화원, 편수로 통칭되는 화승과는 차이를 주었다.<sup>30</sup>

17세기 말~18세기 초 직지사에 집결한 여러 화승들 중 두각을 보였던 성징은 설잡, 도의 등

25 관징 외에도 祖遠은 1735년 직지사 대웅전 불사에서 화주이자 幹善으로 활동하였다.

26 〈慶尙右道昌原南面佛母山聖住寺三世如來靈山主佛改金與三壇幀能天主所付各庵幀并爲十五部繪畫腹藏文〉(1729) “…甲子未還壇上如來金色脫落掛壁畫相彩光飛出居者之悶過客之愁適有年矣雍正戊申本寺龐眉六七取頭相議曰何人此事可以重之諾曰碧巖之紗攝閑之子眞淨道人適當其首也然不應何已言之於是強要請之則道人掉頭叱擲曰修道之人何來○也復歸如是者凡爲五度不得應諾未數月間取財十餘萬錢己酉端陽之月請工一以塗金一以爲繪畫不數月而訖功仍爲奉安…龍眠比丘性澄 信淨 漢英 印行 漢英 世冠 國英…大功德主碧巖嫡孫道人眞淨…”, 『경상남도 II-자료집』, p. 328.

27 18세기 후반-19세기에 경상도에서 조성된 불화 화기에는 간혹 龍眠 대신 龍眼을 사용하기도 한다. 용안이 용면의 한자 오기인지 아니면 종교적 의미의 점안을 함축하면서 변형된 용어인지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28 장충식, 「直指寺 大雄殿 三世幀畫의 圖像」, 『한국의 불화-직지사 본말사(상)』(성보문화재연구원, 1995), p. 253의 주 20 참고. 이 글에서는 龍眠이 불교이론과 그림에도 일가를 이룬 宋의 문인화가 李公麟(?-1106)이 龍眠山에서 은거하면서 불린 龍眠居士에 착안하여 佛母들 가운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용면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29 〈지장사 청동복장낭 腹藏文〉(1722), “…康熙壬寅清和之月又成此相點眼畢功亦爲丹腹於法殿偉哉祥道人功至矣盡矣余者龍眠也居在金陵之直指寺前者與此人同心結意畫成尊相無數不至而至於今年摹寫既畢阿闍利教令教於…曰作腹藏文以記之余不文短爲辭拙毫略舉云爾…康熙六十一年 聖上即位之二年清和月龍眠性澄謹識.” 『경상북도 II-자료집』, p. 343.

30 〈성주사 감로도〉(1729), “雍正七年己酉五月日謹摹上壇幀一部奉安于慶尙右道昌原都護府南佛母山聖住寺…緣化秩 證明道人惠華 誦呪道人震日 持殿道人一清 指證龍眠比丘性澄 通政比丘眞淨 比丘漢英 畫員比丘印行 比丘漢英 畫員比丘世冠 比丘國暎…” 『경상남도 II-자료집』, p. 330.

과 경쟁 속에서 탁휘에 이어 직지사의 수화승의 자리에 올랐다. 성징은 <용문사 영산회괘불도>를 조성하면서 탁휘의 화맥과 화풍을 계승하였고 이후 황악산 직지사 수화승이란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용면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징에 의해 황악산 화승집단을 이끄는 수화승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된 용면은 직지사 화승집단의 명맥이 끊긴 19세기에도 경상도에서 활동하던 수화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sup>31</sup>

### 3. 碧巖系 暮雲門中の 직지사 불사와 龍眠 世冠

18세기 전반에 일어난 직지사 대웅전 불사는 1714년에 삼세불상의 개금과 법당 단청을 시작으로 1735년에 중창으로 이어졌으며 1744년에 <삼세불회도>를 봉안하면서 마무리되었다. 1714년 대웅전 삼세불상 개금과 단청, 1744년 삼세불회도 제작은 직지사 화승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30년간의 연속된 불사 속에서 직지사 화승들을 이끌던 수화승은 性澄에서 世冠으로 교체되었다. 세관은 성징의 말년 제자로 성징이 조성하는 지장사 괘불도(1722), 봉곡사 영산전 불화 제작(1722), <직지사 감로도>(1724), <성주사 감로도>(1729) 등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면서 화업을 쌓았다. 세관이 성징을 대신해 직지사 화승집단의 수화승을 맡은 시기는 대략 1730년대 후반으로 파악된다.

기록뿐이지만 『雙溪寺事蹟』(1869년 추정)의 「星州雙溪寺後佛三軸及三藏圖改造記」에 따르면, 1739년에 黃嶽山 화승 세관은 琵琶山 화승 雪心, 靈鷲山 화승 任閑 등과 쌍계사 대웅전 후불벽에 봉안되는 6m에 이르는 3폭의 대형불화를 조성하였다(도 8).<sup>32</sup> 이처럼 비슬산, 영축산, 황악산 등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화승이 쌍계사 대웅전 후불도 제작을 위해 모일 수 있었

<sup>31</sup> 조선후기에는 그림을 그리는 이를 지칭하는 畫員, 畫士, 畫師라는 보편적인 용어 대신 金魚, 龍首, 龍眠 등 새로운 명칭이 화승에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어 변화에 관해 이종수·허상호, 앞의 논문, pp. 143-145 참고.

<sup>32</sup> <星州雙溪寺後佛三軸及三藏圖改造記>, “...今茲雙溪之設立 順治四年之經營...生還一甲有年 毀及四圖無日 不有慶舊徒新之數 人置舍財種○之秋 大運重治 高德並出一人○募雪岑其命 一人內○時海其號 ○○○之錢谷 入雙溪之金沙 姿多少之龍眠 畫十一之佛會...於是 奉三會於上卓 眞一位於中壇 一位安於東寺之彌陀 一位安於○庵之寶月 一位安於開寧卽鷄林寺之紺殿 二位安於大丘府湧泉寺之青蓮 一位安於公山之念佛庵 一位安於○堂之中○寺...雍正十三年卽今朝十二年乙卯閏四月下春 磻斗慧識...緣化秩 證明山人一宗八公山 誦呪山人秀安本寺 慧敏伽椰山 畫員山人 雪心琵琶山 喜心 左畫 任閑靈鷲山 右畫 世冠黃嶽山 敏輝大興寺 徹坦 最賢八公山 三藏畫 慧湜時禪石抱根 等覺 月輪 直指寺 別座通政時海 化土山人雪岑...”. 일제강점기에 정리된 김천 쌍계사 재산목록에 의하면 쌍계사 대웅전에는 여래상 1구와 보살상 2구가 모셔져 있었다. 따라서 1739년에 조성된 3축의 불화는 삼불회도가 아닌 삼존불회도로 추정된다.

던 것은 세거문중이 벽암문중이라는 사실이 작용하였을 것이다.<sup>33</sup> 특히 세관이 쌍계사 불화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불사의 화주이자 탁휘, 성징과 직지사 화승으로 활동했던 **雪峯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쌍계사 대웅전 후불도의 조성 경험은 세관이 1744년에 <직지사 대웅전 삼세불회도> (이하 직지사 삼세불회도)를 제작할 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도 8 『雙溪寺事蹟』, 1869년 추정, 51.8×39.5cm

세관은 직지사에 세거하면서 불사가 있을 때마다 직지사 승려로서 불사에 동참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직지사서에서 활동하던 화승들 중 설잠인 경우 道人으로 표기하거나 다른 화승들은 일반 시주자로 명기하는 것과 다르게 세관에게는 龍眠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sup>34</sup> 또한 세관은 다른 사찰에 초청되어 불화를 제작할 때에는 ‘請直指’를 기록해 직지사 소속의 수화승임을 분명히 하였다. 세관이 자신이 이끄는 화승무리의 우두머리임을 상징하는 용면과 주석처인 직지사를 강조하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징의 구축했던 황악산 직지사 수화승의 정통성과 화승집단의 정체성을 계승하고자 했던 행보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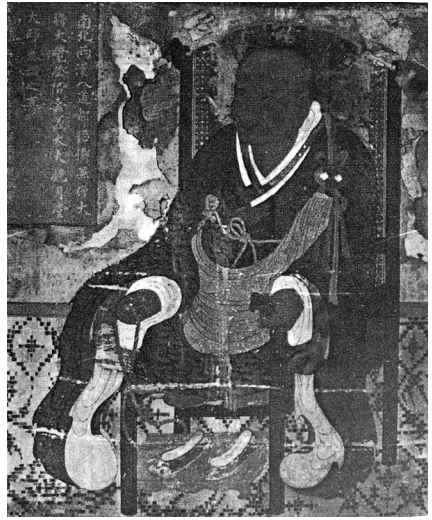
성징에서 세관으로 이어지는 세대교체와 맞물려 직지사의 불사를 주관하는 승려문중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탁휘, 설잠, 성징이 참여했던 1714년 대웅전 불상 개금과 단청 불사를 벽암계 고운문중의 영파성호가 주도했다면 1735년 대웅전 중창 불사에는 모운진언의 후손인 雲巖處明과 鏡月泰鑑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7세기 후반 직지사에는 벽암각성의 3세손 청봉수영, 운암처명, 敏恩思遠, 智伯 등이 세거하였다(표 2). 이들 중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직지사 불사는 청봉수영과 영파성호가 주도하였으나 더 이상 문중이 번성하지 않으면서 직지사 불사의 운영 주체는 벽암계 모운문중으로 옮겨갔다. 모운문중은 운암처명 이후 추담관징(1702-1778)을 거쳐 松

<sup>33</sup> 雙溪寺는 1647년에 仲雲智禪이 창건한 후 한국전쟁에 사찰이 소실되기 전까지 靑巖庵, 修道庵, 白蓮庵을 산내암자로 거느릴 정도로 규모 있는 사찰이었다. 청암사에는 회암정혜를 비롯한 벽암문중의 후손들이 주석하였으며 쌍계사는 경월태감의 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벽암문중이 세거사찰로 추정된다. 벽암문중과 화승 임한, 설잠의 관련성은 이용윤, 「조선후기 통도사의 僧侶門中과 畫僧任閑」, 『불교미술사학회』 23(2017), pp. 127-158 참고.

<sup>34</sup> 직지사 대웅전 중창 때 작성된 <第二化主祖遠同參募緣錄>(1735)에는 세관만을 龍眠이라 기록하고 다른 화승인 설잠은 道人으로 기록하였으며 다른 <施主秩>에 漢英과 國英은 시주자로 직지사 서전에 주석하는 대승으로 기록하였다.

潭晟源, 退隱如愚, 影月可誠 등으로 이어졌고 영월  
가성이 虎峰雪鴻을 배출하면서 19세기까지 문중  
의 영향력이 지속되었다.<sup>35</sup>

운암치명과 추담관징이 활동하던 시기에 직  
지사 불사를 실질적으로 맡아 진행한 인물은 모운  
진언의 또 다른 후손 鏡月泰鑑이다. 경월태감은 어  
려서 직지사의 熙雲스님에게 맡겨져 모운진언의  
제자인 智伯스님에게 출가하였다.<sup>36</sup> 지백과 경월태  
감은 모운진언의 世系에는 전하지 않지만 18세기  
중엽 경상도 서북부에서 경월태감의 존재감은 상  
당하여 입적 후 직지사와 쌍계사에는 그를 추모하  
기 위한 진영이 제작되고 불망비와 공덕비가 세워  
졌다(도 9).<sup>37</sup>



도 9 <직지사 경월태감진영>, 조선후기, 소재 미상

경월태감은 영파성호에 이어 1735년~1750년 사이 직지사에 일어난 불사에 적극적인 행보  
를 보였다.<sup>38</sup> 경월태감은 직지사 대웅전 중창불사(1735) 시주자로 참여한 후 1741~45년경에 주지

35 <直指寺大雄殿重創記 懸板>(조선후기), “...寺內執綱有宗益琇下清察之倡導 山中大德賴義天處明貫澄之指揮 以忠默清源之賢勞成王舍結集之果 惟祖遠化土之勤幹啓伽葉禮足之因是皆圖報佛恩孰不謀襄盛舉籍鴻庥於三寶車子之借財輦輪頌龍藏於兩都檀越之施帛雲委虹樑璇椽咸仍舊制不煩經始之功...”(『경상북도 II-자료집』, p. 155); 운암치명의 법맥에 관한 내용은 耕雲炯堉 編, 『海東佛祖源流』樂(佛書普及社, 1978), p. 124; <秋潭大師之碑>(1787)에 의하면 관징은 雷遠에게 출가하고 晦庵, 洛岩, 喚醒, 雙運 등에게 가르침을 받고 雲岩의 법맥을 계승하였다고 한다(『경상북도 II-자료집』, p. 133);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雄殿重創記>(1735)에는 관징이 법사인 운암치명만이 아니라 은사인 뇌원과 함께 대웅전 불사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경상북도 II-자료집』, p. 153); <直指寺佛像改金施主秩 懸板>(1777)에는 직지사의 종사로 추담관징과 그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다.(『경상북도 II-자료집』, p. 157).

36 <資憲大夫鏡月長老泰鑑功德碑銘>(1769), “...雖不見面者皆知直指山中有傑僧泰鑑幼少貧無賴投黃岳山熙雲祝髮於智伯師師嚴宗慕雲大和尚之佛嫡中歲名開嶺伯授以慶州鎮都摠後爲南北漢摠攝...”(『경상북도 II-자료집』, p. 171).

37 1735년에 경월태감은 직지사 西殿에 주석하였다. 입적 후 직지사에 경월태감의 진영이 모셔졌으며 <兩漢摠攝資憲大夫鏡月堂泰鑑萬歲不忘碑>(1773)가 건립되었다. 또 다른 공덕비인 <資憲大夫鏡月長老泰鑑功德碑>(1769)는 김천 쌍계사터에 전한다.

38 경월태감은 1735년 대웅전 중창부터 시작하여 1750년까지 직지사 대웅전 불사에 집중하였다. 대웅전 중창 불사에는 태감만이 아니라 제자인 省輝와 손상좌 頓修가 직지사 僧統과 都監으로 관여하였으며, <직지사 삼세불회도>(1744년) 제작에는 대시주자로 참여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 <經櫃>(1739)와 <大雄殿 鐵製銀入絲香爐>(1750)를 제작하는 등 직지사 대웅전의 크고 작은 불사에 노력을 다하였다. 이외에도 <직지사 삼세불회도>(1744)



도 10 <직지사 대웅전 삼세불회도>, 1744년,  
비단에 채색, 중앙폭 644×298cm. 좌우폭  
644×238cm



도 11 <직지사 시왕도>, 1744년, 비단에 채색, 140×270cm

를 역임하면서 呂祥이 1668년에 준비한 사적을 碑에 새겨 마무리하고 宗益과 함께 虹橋인 萬歲橋을 건립하였다.<sup>39</sup> 만세교를 건립하면서 경월태감은 세관에게 비의 題額을 맡겼다.<sup>40</sup> 세관과 경월태감은 이후에도 <직지사 삼세불회도>(1744)와 <직지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1744) 제작에서 불사의 주관자와 제작자로 관계를 지속하였다(도 10, 도 11, 표 4).

이처럼 세관이 활동하던 18세기 전반에 직지사 화승집단은 벽암문중과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조형 활동을 하였다. <직지사 삼세불회도> 화기에서 드러나듯 당시 직지사와 산내암자에는 世冠, 月印 등을 포함한 8명의 화승이 황악산에 상주하였다. 이들은 불화 제작을 할 때 證見, 證看, 出草, 起草, 助彩 등으로 분업하여 작업할 정도 체계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불화 규모에 따라 인접 지역의 화승들을 모아 작업하였다.<sup>41</sup> 이밖에도 1741년에 남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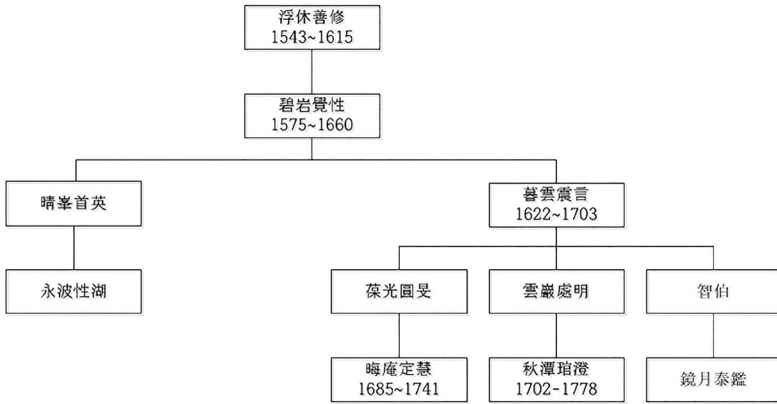
화기에는 경월태감이 威儀 및 上輩의 黃靑帳, 黃傘, 灌浴廳에 소용되는 천을 일시에 改備한 일도 기록되어 있다(『경상북도 II-자료집』, p. 131).

<sup>39</sup> <直指寺事蹟碑銘>(1741), “...粵在辛酉和尚呂祥勸刻此碑未克訖功謾作無用片石時和尚泰鑑慨然興歎滌其莓苔銀其字畫龍頭龜床極力新備屹立於周甲之辛酉或非尋常抑亦有待而然也況與前和尚宗益又成虹橋於紫霞門外名曰萬歲以助一寺顏色可不美哉...”, 『경상북도 II-자료집』, pp. 132-133.

<sup>40</sup> <萬歲橋碑片>(1741), “...歲橋...泰鑑 都監 前銜 通政 宗益 石手首最洽 副瑞鵬 冶匠宋萬命 首僧智元 三綱直舍惠鑑 持寺善聰 題額山人世冠 刻字與策 別座通政歸治...西仲春爲始中○○○功告訖”, 『경상북도 II-자료집』, p. 134.

<sup>41</sup> <직지사 삼세불회도:영산회상도>, “...畫員秩 龍眠山人世冠在本寺 山人神覺本山 山人密機在永州 雲浮寺 山人三玉本山浮屠 山人月印本山 瑞澄大丘桐華 山人 性齋禮泉大谷寺 舜侃本山人能如寺 尊慧本寺 宇平本寺極樂殿 天柱 雙溪寺 應岑本山人內院 有香雙溪寺 自還雲浮寺 湜演本山西殿 謹軒雲浮寺 眞言刻手會識本寺 興策本寺...”; <직지사 삼세불회도:아미타불회도>, “...證看龍眠山人世冠, 山人神覺, 出草 山人月印 兼施主 兼施主 山人守平 天柱 施主兼 應岑 有香 自還 湜演 謹軒...”; <직지사 삼세불회도:약사불회도>, “...證見畫員函丈山人世冠 畫負山人密機 起草弟子山人月印 助彩三玉 山人瑞澄 山人性齋 山人舜侃 山人尊慧...”

〈표 4〉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직지사 벽암문중과 황악산 수화승의 관계



에서 극락보전의 아미타불회도, 삼장보살도, 지장시왕도를 조성할때에는 세관만이 아니라 증사로 직지사의 大德 法圓이 초청되고, 1744년에 〈직지사 삼세불회도〉를 제작할 때에는 직지사 내원 암에 주석했던 月巖震基가 증명을 맡을 정도로 불사에 있어 직지사의 승려들은 화승들과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였다. 특히 월암진기는 〈직지사 삼세불회도〉만이 아니라 세관이 의성 대곡사 불상 개금(1743)과 범주사 소조삼세불좌상 개금 중수(1747)를 맡아 활동할 때에도 증사로 참여해 불사를 도왔다.

17세기 말~18세기 전반에 탁휘, 성징, 세관 등은 직지사 불사의 운영 주체인 벽암문중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황악산을 거점으로 화승집단을 발전시켰다. 이들의 성장 동력은 직지사사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사였으며, 벽암문중을 기반으로 한 직지사 화승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통해 발현되었다. 황악산 화승의 활동은 세관 이후 급격히 사라지게 된다. 이는 직지사에서 천불전, 대웅전과 같은 주요전각의 대규모 불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18세기 후반 직지사에서 대규모 불사가 사라지면서 세관에 이어 화승집단을 이끌어야 하는 월인은 더 이상 직지사주에 주석하지 않고 다른 지역 사찰로 활동지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월인의 말년 작품인 전북 무주 〈안국사 감로도〉(1758)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 탁휘, 성징, 세관으로 이어져 오던 황악산 화승집단의 활동은 월인을 기점으로 직지사사에서 구심점을 잃고 약화되었다.

#### IV. 拈花佛 도상과 벽암문중의 佛書 간행

불교 사상과 교리에 근거한 불화는 특정 도상과 형식을 통해 조형화되며 이는 草本과 模作을 통해 후대에 전승된다. 조선후기에 조성된 불화 대부분은 기존의 도상과 형식을 답습하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때때로 새로운 도상과 형식을 갖춘 불화가 제작되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탁휘와 성징이 제작한 <선석사 영산회괘불도>(1702)와 <용문사 영산회괘불도>(1705)는 조선 후기 괘불도에서 꽃을 든 보살형 장엄신이 주불로 표현되는 것과 다르게 여래가 꽃을 들고 있어 주목된다(도 12, 13).

꽃을 든 보살형 장엄신을 주불로 그린 괘불도는 17세기~18세기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주로 조성되었으며 미륵불, 노사나불, 석가불 등 다양한 존명으로 기록되고 해석되었다(도 14).<sup>42</sup> 이에



도 12 <선석사 영산회괘불도>, 1702년, 삼베에 채색, 687×465cm



도 13 <용문사 영산회괘불도>, 1705년, 비단에 채색, 980×611cm



도 14 <울곡사 괘불도>, 1684년, 비단에 채색, 900×471cm

<sup>42</sup> 보관을 쓰고 신체를 장엄한 주존의 존명에 대한 학술적 명칭은 다양하다. 미륵불이란 견해는 이은희, 『朝鮮後期 彌勒菩薩圖의 연구』, 『문화재』 30 (1997), pp. 147-189; 괘불도 화기에 靈山인 점에 착안해 석가불의 보신인 노사나불의 상징적 표현한 莊嚴佛이라는 견해는 장충식, 『朝鮮朝 掛佛의 考察—本尊 名稱을 中心으로』, 『韓國의 佛書—지지사 본말사 편(下)』 (성보문화재연구원, 1995), pp. 249-258; 보신불의 장엄불 개념을 의식집에 근거해 해석하고 장엄신 괘불로 분류한 견해는 정명희, 『朝鮮後期 掛佛幀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42·243 (2004), pp. 159-185 등 참고. 그의 보관을 쓴 점에 착안해 존명을 盧舍那佛로 해석하고 戴冠菩薩形 掛佛로 분류한 견해로는 박은경, 『조선 17세기 戴冠菩薩形 掛佛』, 『문물연구』 23 (2013), pp. 80-12 참고.

비해 꽃을 든 여래의 존명은 석가불로 拈花示衆을 상징하며 18세기 초 경상도 서북부에서 활동한 탁회와 성징에 의해 과별도로 제작되었다. 염화시중은 禪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가섭이 세존의 禪旨를 이어받았음을 증명하는 三處傳心 중 영산회상에서 석가불이 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만이 그 의미를 알았다는 擧拈華에서 유래한다. 서산휴정이 『禪教訣』에서 선법을 설명할 때 염화시중을 인용할 정도 삼처전심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sup>43</sup> 영산회상은 석가불이 영축산에서 설한 설법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설법이 바로 『妙法蓮華經』(이하 법화경)이다. 원래 『법화경』에는 염화시중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법화경을 설한 장소와 염화시중이 일어난 장소가 영축산이라는 점에 의거해 禪教一致를 상징하는 영산회에서 꽃을 든 석가불인 拈花佛 도상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sup>44</sup> 이와 맞물려 16세기~17세기 승려들의 履歷과정에서 교학의 대표경전으로 『법화경』이 중시되면서 <묘법연화경변상도>(이하 법화경변상도)를 중심으로 염화불 도상이 조형화되고 확산되었다.

법화경변상도에 염화불 도상이 등장하는 가장 이른 예는 <안심사 법화경변상도>(1545)이다. 이 변상도는 16세기 광흥사와 신안사에서 간행된 금강경변상도에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5</sup> 안심사 판본은 이후 1604년 쌍계사 능인암에서 다시 개판되었다. <쌍계사 법화경변상도>(1604)에서 석가불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는 보살들과 10대제자, 사천왕과 팔부중이 표현되어 있으며 석가불은 오른쪽에 자리한 청법자와 대중을 향해 꽃을 들어 보이고 있다(도 15). 쌍계사 능인암에서 일어난 불서 간행은 부휴선수와 벽암각성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꽃을 든 석가불의 표현된 변상도를 간행하는 것 역시 이들의 의중의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sup>46</sup>



도 15 <쌍계사 묘법연화경변상도>, 1604년, 목판본

<sup>43</sup> 『鮮家龜鑑』, “禪教之源者世尊也 善教之派者 迦葉阿難也”(『韓國佛教全書』7 (동국대학교 역경원, p. 636). 김영태, 『休靜의 禪思想과 그 法脈』, 『韓國禪思想研究』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7), pp. 286-287.

<sup>44</sup> 염화불이 표현된 과별도에 관한 연구로 정명희, 앞의 논문, pp. 172-175.

<sup>45</sup> 박도화, 『朝鮮朝 妙法蓮華經 版畫의 研究』, 『佛敎美術』 12 (1994), pp. 177-205; 『朝鮮時代 金剛經 版畫의 圖像』, 『佛敎美術研究』 3-4 (2007), pp. 71-93; <안심사 법화경변상도>가 금강경변상도를 차용한 배경을 각수로 본 의견은 김태형, 『朝鮮時代 法華經 變相版畫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 72-75 참고.

<sup>46</sup> 송일기·박민희,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開板佛書 研究』, 『서지학연구』 46 (2010), pp. 382-386. 1603년과



도 16 <청계사 모법연화경변상도>, 1622년, 목판본

꽃을 든 석가불이 표현된 법화경변상도와 벽암문중의 관계는 1622년 청계사 불서 간행 사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622년 광해군은 세자의 원찰인 경기도 광주 청계사에 齋會를 개최하였다. 당시 재회에는 부휴선수의 제자 孤閑熙彦과 碧巖覺性이 증사로 참여하였다.<sup>47</sup> 고한희언과 벽암각성은 청계사 재회 개최만이 아니라 1622년에 일어난 불서 간행 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이 중

『법화경』 권말에는 삼전하축원과 “熙運, 覺性, 熙彦 등이 주요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청계사 법화경 간행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청계사 법화경변상도>(1622)가 <쌍계사 법화경변상도>(1604)를 모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도 16). 변상도에서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듯 청계사 법화경은 쌍계사 법화경을 복각한 것이며 이는 두 사찰의 불사를 주도한 벽암각성과 관련되어 있다.

쌍계사 판본은 청계사 개관 이후에도 함양 군자사(1636), 밀양 영정사(1638), 진주 백천사(1659), 고성 운흥사(1684), 청송 대전사(1685), 고성 법천사(1711), 산음 왕산사(1728) 등 주로 지리산 일대와 경상도 남해안에서 집중적으로 판각되었다. 간행된 법화경이 유통된 지역을 살펴보면, 지리산에 자리한 함양 군자사 판본과 산음 왕산사 판본은 경남 합천 해인사까지 사용되었고 영정사 판본은 대구 동화사 및 은해사, 그리고 청송 대전사 판본은 은해사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쌍계사 법화경은 청계사를 제외하고 벽암문중이 세거하는 경상도 서남부 일대에서 주로 판각되었으며 인출을 통해 해인사, 동화사, 은해사 등 경상도 중북부까지 확산되었다. 17세기 경상도에서 유통된 쌍계사 계열 법화경변상도는 괘불도에 주불로 표현된 꽃을 든 보살형 장엄신을 석가불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더 나아가 꽃을 든 보살형 장엄신 대신 석가불이 괘불도의 주불로 표현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하였을 것이다.

1604년 쌍계사 판본은 부휴선수와 벽암각성이 간행을 주도하였으며 이중 부휴선수는 『初發心學人文』, 『高峰和尚禪要』, 『禪源諸詮集都序』, 『大慧普覺禪師書』 등에 참여하고, 벽암각성은 『고봉화상선요』와 『대혜보각선사서』 등의 校訂을 맡았다.

<sup>47</sup> 청계사에 거행된 재에 벽암각성과 고한희언이 증사로 참여한 일에 관해서는 『大覺登階集』의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과 「孤閑大師行狀」은 『韓國佛教全書』8, pp. 329-332 참고.

쌍계사 계열 법화경과 더불어 벽암문  
중의 조력을 받은 탁휘와 성징이 염화불  
을 괘불도의 주존으로 표현하는데 보다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불사로 법주사 『법화  
경』(1655)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48</sup> <법주  
사 법화경변상도>(1655)는 쌍계사 계열 법  
화경변상도와 다르게 꽃을 든 석가불이  
정면을 향해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그 좌  
우로 보살들과 10대제자가 표현되어 있다



도 17 <법주사 묘법연화경변상도>, 1655년, 목판본

(도 17). 주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권속을 배치하는 방식은 불화에서 존상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형식이다. 특히 <법주사 법화경변상도>에서 정면을 향해 꽃을 들어 보이는 석가불의 모습은 탁  
휘와 성징이 제작한 <선석사 영산회괘불도>(1702)와 <용문사 영산회괘불도>(1705)와 연속되는 표  
현이라 할 수 있다.

법주사는 1664년에 <벽암각성대사비>가 건립될 정도로 벽암문중의 주요 세거 사찰이다. 벽암  
각성비의 건립을 추진한 住持法莊은 1655년에 염화불 도상이 표현된 변상도가 있는 법화경을 판  
각할 때에도 주지 소임을 맡았다.<sup>49</sup> 비록 僧侶門譜에서 벽암각성과 법장의 관계를 찾을 수 없으나  
1663년 화엄사에 세워진 <벽암각성대사비>에서 벽암문도와 함께 “通政法莊”이 기록될 정도로  
벽암각성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sup>50</sup> 이처럼 벽암문중이 세거하는 법주사에서는 선교일치사상이  
반영된 새로운 형식의 꽃을 든 석가불의 변상도를 제작하였고 이는 17세기 후반~18세기 초 법주  
사와 인력 교류가 잦았던 직지사에도 전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면을 향해 꽃을 들어 보이는 석가불의 모습은 17세기 후반에 부인사와 갑사에서 간행된  
『선문조사예참문』 변상도에도 표현되었다(도 18).<sup>51</sup> 권수의 “至心歸命禮 靈山會上拈花示衆時我

<sup>48</sup> <선석사 영산회괘불도>와 <용문사 영산회괘불도>의 염화불 도상이 <쌍계사 법화경변상도>, <법주사 법화경변상  
도>, <선문조사예참문 변상도>에서 차용했다는 의견으로는 정명희, 앞의 논문, p. 175; 김미경, 앞의 논문, pp. 8-16  
참고.

<sup>49</sup> <법주사 묘법연화경>(1655), “緣化秩 證明雪察比丘 引湖比丘 智峯 供養主 雪坦…住持 法莊比丘 敬演比丘…引勸  
變相兼慈敏…”법주사 <벽암당각성대사비>는 智冠 編, 앞의 책, pp. 174-177.

<sup>50</sup> 화엄사 <벽암당각성대사비>는 智冠 編, 앞의 책, pp. 180-184.

<sup>51</sup> 부인사 『선문조사예참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되어 있으며, 원본은 디브리리([www.dlibrary.net](http://www.dlibrary.net)) 통합자료 참고.  
갑사 『선문조사예참문』은 朴世敏, 앞의 책, pp. 438-452.



도 18 <갑사 선문조사예참문변상도>, 1670년, 목판본

釋迦牟尼佛 願降道場受此供養”라는 구절과 함께 꽃을 든 석가불이 표현된 변상도는 영산회상과 염화시중이 하나의 개념처럼 견고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인사 『선문조사예참문』(1660)의 간행 주체는 알 수 없으나 같은 시기에 개관된 갑사의 『선문조사예참문』(1670)의 판각 주체인 雪梅와 道性を 통해 벽암문중과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도성은 갑사 판본을 판각할 당시 八公山 天堀寺에 주석하면서 부인사 판본의 존재를 알고 이를 갑사에 소개한 인물로 추정된다. 각공이자 별좌로 개관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한 설매는 법주사 <벽암각성대사비>에서 법장에 앞서 주지를 역임한 설매와 동일인으로 짐작된다.<sup>52</sup> 이처럼 부인사 판본의 판각 주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갑사 판본을 개관한 도성과 법성의 행적으로 보아 부인사 판본도 벽암문중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쌍계사 계통의 『법화경』과 법주사의 『법화경』, 그리고 부인사와 갑사의 『선문조사예참문』 등 벽암문중의 주도로 간행한 불서와 변상도는 경상도와 충청도에 분포한 벽암문중에게 확산되었고 17세기 후반 황악산 직지사예 세거했던 碧巖門徒도 문중을 통해 염화불 도상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특히 충청도 벽암문중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청봉수영과 영파성호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들의 조력을 받던 수화승 탁휘와 성징은 같은 문화 배경과 승려문중을 기반으로 불서로 공유되던 선교일치사상을 상징하는 염화불 도상을 영산회괘불도로 조형화하였다.<sup>53</sup>

꽃을 든 석가불이 표현된 불화는 이후 크게 유행하지 않았지만 18세기 초 탁휘와 성징이 제작한 괘불도의 존재는 조선후기 불화 연구에서 새로운 도상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변상도의 영향과 수화승의 재능만이 아니라 이를 공유하고 예경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사상적 뒷받침을 한 승려문중의 숨어있는 조력 관계도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sup>52</sup> 갑사 『선문조사예참문』(1670), “前刻工兩道摠攝都大總兼別座 雪梅慶尙道八公山天堀寺居功德大化士 道性”

<sup>53</sup> 현재 법주사 『법화경』은 남장사, 직지사 등 주로 경상도 서북부지역에 遺傳되고 있다. 다만 직지사 소장본에는 1990년대에 말사인 상주 북장사, 문경 김룡사, 예천 용문사, 구미 수다사 등지에서 이전해 온 경전이 혼재되어 있다. 남장사와 직지사 소장본에 관한 조사 내용은 『경상북도 Ⅱ-1, 2, 자료집』 참고.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에 일어난 황악산 직지사를 대상으로 불사를 주도한 승려문중과 불사를 수행한 수화승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7세기 불교계는 전란의 피해 입은 사찰을 복구하기 위한 불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명유정의 출가 사찰인 직지사는 전쟁이 끝나자 사명문중을 중심으로 복원 불사가 진행되었고 가람이 정비된 후에도 벽암문중을 중심으로 전각 중창과 중수, 불상 개금 및 불화 조성 등의 불사가 지속되었다. 벽암문중이 불사를 주도하던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직지사에는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집결하였고 이 가운데 卓輝를 시작으로 性澄과 世冠 등 황악산 직지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수화승과 화승집단이 등장하였다.

탁휘와 성징이 활동하던 시기 직지사 불사는 벽암계 고운문중의 청봉수영과 그의 제자 영파성호가 주도하였다. 청봉수영과 영파성호는 충청도에 세거한 벽암문중과 연결되어 있으며 탁휘 또한 충청도 화승의 화맥과 화풍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연관성은 탁휘가 직지사에 정착하고 <남장사 감로도>에 청봉수영이 증사로 참여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탁휘에 이어 직지사 수화승의 지위에 오른 성징은 봉곡사에 세거한 벽암계 모운문중 출신이다. 성징은 탁휘의 화맥과 화풍을 계승하는 한편 벽암문중을 기반으로 경상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성징은 龍眠이란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황악산 직지사 수화승의 위상과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탁휘와 성징에 이어 황악산 화승집단의 수화승으로 활동한 세관은 새로운 불사 운영주체인 모운문중의 경월태감과 직지사 불사를 함께 하였다. 세관은 성징과 마찬가지로 용면이란 호칭과 직지사 수화승임을 강조하며 활동하면서 황악산을 거점으로 한 체계적 조직을 갖춘 화승집단을 형성하였다.

한편, 탁휘와 성징은 꽃을 든 석가불을 주불로 하는 <선석사 영산회괘불도>와 <용문사 영산회괘불도>를 제작하였다. 꽃을 든 석가불은 선교일치사상이 반영된 염화불 도상으로 17세기에 벽암문중이 간행된 불서의 변상도로 표현되면서 확산되었다. 벽암문중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탁휘와 성징도 변상도를 통해 염화불 도상을 인식하였을 것이며, 문중의 사상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 속에 염화불을 주불로 하는 새로운 형식의 괘불도를 제작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황악산 직지사 불사는 벽암문중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탁휘, 성징, 세관 등은 벽암문중의 조력을 받으며 황악산 직지사를 거점으로 한 활동하면서 문중이 공유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염화불이 표현된 새로운 형식의 불화를 제작하였다.

**\*주제어(key words)** 승려문중(僧侶門中, Monastic Clan), 벽암각성(碧巖覺性, Byeogam Gakseong), 탁휘(卓輝, Takwi), 성징(性澄, Seongjing), 세관(世冠, Segwan), 염화불(拈花佛, Buddha Holding a Flower)

▣ 투고일 2017년 11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7년 12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8년 1월 23일 ▣

## 참고문헌

### 1. 사료

- 『金山直指寺重記』, 1776(직지사 소장본)  
『金山直指寺事蹟』, 조선후기(직지사 소장본)  
『先師追薦錄』, 조선후기(봉곡사 소장본)  
『先師追薦錄』, 1810년(봉곡사 소장본)  
『雙溪寺事蹟』, 조선후기(청암사 소장본)  
『直指寺誌』, 아세아문화사, 1980.  
采永集錄,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韓國佛教全書』10, 1998)  
耕雲岬俊編, 『海東佛祖源流』, 佛書普及社, 1978.  
『增補佛祖源流』, 原本及增補刊行委員會, 1983.  
丁詩翰著·金成讚譯, 『山中日記』, 國學資料院, 1999.  
智冠編, 『韓國高僧碑文總集-朝鮮朝·近現代』,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  
중흥사 간행, 『天地溟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1721(『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3, 1993)  
박상국 편, 『全國寺刹所藏木板集』, 국립문화재연구소, 1987.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I』,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 I』,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 II』,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 2. 한국어 문헌

- 강영철, 「19세기 초 경기지역 華嶽·華潭 門中の 畫僧」, 『동양미술사학』5, 2004, pp. 55-162.  
김영태, 「休靜의 禪思想과 그 法脈」, 『韓國禪思想研究』,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7, pp. 286-287.  
김태형, 「朝鮮時代 法華經 變相版畫 研究」, 동국대학교석사학위, 2008.  
박도화, 「朝鮮朝 妙法蓮華經 版畫의 研究」, 『불교미술』12, 1994, pp. 177-205.  
\_\_\_\_\_, 「朝鮮時代 金剛經 版畫의 圖像」, 『佛教美術研究』3·4, 2007, pp. 71-93.  
박정혜,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9, 1995, pp. 203-290.  
송일기·박민희,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開板佛書 研究」, 『서지학연구』, 46, 2010, pp. 382-386.  
이강근, 「17세기 법주사의 재건과 양대 문중의 활동에 관한 연구」, 『강좌미술사』26, 2006, pp. 49-76.  
이용윤, 「退雲堂 信謙 佛畫와 僧侶門中の 後援」, 『미술사학연구』269, 2011, pp. 71-101.  
\_\_\_\_\_, 「조선후기 嶺南의 佛畫와 僧侶門中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2015.  
\_\_\_\_\_, 「조선후기 통도사의 僧侶門中과 畫僧 任閑」, 『불교미술사학』26, 2017, pp. 127-158.

- \_\_\_\_\_, 조선후기 鞭羊문중의 佛事와 僧侶匠人의 활동, 『미술사연구』 32, 2017, pp.137-165.
- 李宗洙, 『靑銅腹藏囊의 新例—腹藏文 내용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69, 2003, pp. 133-142.
- 이종수·허상호, 「17-18세기 불화의 『畵記』 분석과 용어 考察」, 『佛敎美術』 21, 2010, pp. 143-145.
- 尹銀熙, 「화승 性澄의 불화 연구」, 『강좌미술사』 26-2, 2008, pp. 609-636.
- 정명희, 「朝鮮後期 掛佛幀의 研究」, 『미술사학연구』 242·243, 2004, pp. 159-195.
- \_\_\_\_\_, 「조선시대 불교 의식과 승려의 소임 분화: 감로도와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31, 2016, pp. 252-281.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승려문중이 화승의 조형 활동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黃嶽山直指寺에서 일어난 佛事를 대상으로 이 시기 불사를 주도했던 벽암문중과 직지사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화승 卓輝, 性澄, 世冠 등과의 조력 관계를 밝혀보고, 벽암문중이 공유했던 拈花佛 도상이 문중의 조력을 받은 탁휘와 성징을 통해 불화로 조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탁휘와 성징이 활동하던 시기 직지사 불사는 碧巖系 孤雲門中の 晴峯首英과 그의 제자 泳波性湖가 주도하였다. 청봉수영과 영파성호는 충청도에 세거한 벽암문중과 연결되어 있으며 탁휘 또한 충청도 화승의 화맥과 화풍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연관성은 탁휘가 직지사에 정착하고 <남장사 감로도>(1701)에 청봉수영이 증사로 참여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탁휘에 이어 직지사 수화승의 지위에 오른 성징은 봉곡사에 세거한 碧巖系 暮雲門中 출신이다. 성징은 탁휘의 화맥과 화풍을 계승하는 한편 벽암문중을 기반으로 경상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성징은 龍眠이란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황악산 직지사 수화승의 위상과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탁휘와 성징에 이어 황악산 화승집단의 수화승으로 활동한 세관은 새로운 불사 운영주체인 모운문중의 鏡月泰鑑과 직지사 불사를 함께하였다. 세관은 성징과 마찬가지로 용면이란 호칭과 직지사 화승임을 강조하며 활동하면서 황악산을 거점으로 한 체계적 조직을 갖춘 화승집단을 구축하였다. 한편, 탁휘와 성징은 꽃을 든 석가불을 주불로 하는 <선석사 영산회괘불도>(1702)와 <용문사 영산회괘불도>(1705)를 제작하였다. 이 拈花佛 도상은 17세기에 벽암문중이 간행된 불서의 변상도로 표현되면서 확산되었다. 벽암문중의 조력을 받는 탁휘와 성징 역시 변상도를 통해 연화불 도상을 인식하고 있었고 문중의 사상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 속에 연화불을 주불로 하는 새로운 형식의 불화를 제작하였다.

이처럼 탁휘, 성징, 세관 등은 황악산 직지사 불사를 주도했던 벽암문중의 지원을 받으며 수화승으로 성장하고 화승집단을 발전시켰으며 문중이 공유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연화불이 표현된 새로운 불화를 제작하였다. 승려문중을 기반으로 한 화승의 활동과 불화 제작은 이 글에서 살펴본 황악산 직지사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승려문중이 발달한 조선후기 사찰에서 불사를 주관하는 운영주체와 이를 수행하는 화승은 같은 승려문중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찰 불사 때 화승이 활동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 Monk-Painters of Hwanghaksan Mountain with Support of the Byeogam Clan in the Late Joseon

Lee, Yongyun\*

In order to clarify to what extent a monastic clan would have affected the artistic activities of monk-painters, this article scrutinizes painting projects at Jikjisa Temple, Hwanghaksan Mountain during the late 17<sup>th</sup> and 18<sup>th</sup> centurie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lan of Byeogam who led the projects and monk-painters who built bases at the Jikjisa Temple, such as Takwi 卓輝, Seongjing 性澄, and Segwan 世冠. It further explores how the iconography of a “Buddha Holding a Flower,” shared by the Byeogam clan, was represented in a painting by Takwi and Seongjing, who received the monastic clan’s support.

When Takwi and Seongjing were active, the project at Jikjisa Temple was led by Cheongbong Suyeong 晴峯首英 and his pupil, Yeongpa Seongho 泳波性湖, both from a clan of Goun 孤雲 belonging to the Byeogam school. They are connected to the Byeogam clan, which originated in the Chungcheong-do area, and Takwi’s painting style was inherited from the monk painters in the area. This connection might have been reason that Takwi settled in Jikjisa Temple, and why Suyeong participated in the painting project *Nectar Ritual Painting* (1701) of Namjangsa Temple as a witness. Following Takwi, Seongjing became a head monk-painter at Jikjisa Temple; he was from Moun’s clan, which originated in Bonggoksa Temple,

---

\*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eadquarters

and was also part of the Byeogam school. While he inherited Takwi's painting style, he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painting in Gyeongsang-do, the Byeogam school's base. Interestingly, he used the word *Yongmyeon* 龍眠, meaning a dragon face, to symbolize his identity and high rank as a head monk-painter. Segwan, the next head monk-painter of the Hwanghaksan Mountain's painters group, followed by Takwi and Seongjing, participated in the painting project at Jikjisa Temple together with Gyeongwol Taeik 鏡月泰鑑, a new leader of the project from the Moun's clan. Similar to Seongjing, Segwan adopted the pen-name *Yongmyeon* and emphasized his rank as a monk-painter at Jikjisa Temple. He eventually organized a systemized group of monk-painters who worked in the Hwanghaksan Mountain area. On the other hand, Takwi and Seongjing painted the *Buddha's Preaching at Vulture Peak* (1702), which is a hanging scroll of Seonseoksa Temple, and another hanging scroll of the same name hanging at Yongmunsa Temple (1705). The latter painting exhibits iconography of the Shakyamuni Buddha holding a flower as a central image of veneration. This iconography became prevalent because it was employed in a sutra painting in a Buddhist book published by the Byeogam clan in the 17<sup>th</sup> century. Takwi and Seongjing who received support from the clan, were well aware of the iconography through the sutra painting. They created a new type of painting with the icon of the Buddha holding a flower based on philosophical thoughts and administrative support from the Byeogam clan.

With support from the Byeogam clan, who led the painting project at Jikjisa Temple, Takwi, Seongjing, and Segwan were able to become head monk-painters, develop a group of monk-painters, and create a new iconic painting with the Buddha holding a flower, based on the shared philosophical thoughts by the clan. This example of monk-painters' work being supported by monastic clans would not have limited to the case of Jikjisa Temple in Hwanghaksan Mountain. Considering that monastic clans were very active in the late Joseon, it is probable that the leaders of an artistic project and monk-painters for the project were from the same clan. It became an important background for the monk-painters to participate in a temple project.